

서귀포의 지명유래 서불과지전설 小考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윤봉택

1. 서귀포의 지명유래

서귀포西歸浦에 대한 지명유래는 서불과지徐市過之(또는 徐市過此)에서 시작된다.

서불徐市과 서복徐福은 같은 인물로서, 이에 대한 인명 표기는 다르나 동일 인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史記』에는 ‘진시황37년(기원전210) 황제가 남쪽을 순행하였는데, 남해에 비석을 세우고 다시 북쪽 낭아로 돌아 왔다.’ 방사 서불 등이 동해로 나가 신약을 구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 얻지 못하고.....’, 서복이 입해 해서 다른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황제를 속이면서 말하였다. 신이 바다에서 대신을 만났는데 말하기를.....’이라고 하여 같은 사료에서도 서불과 서복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불로초를 상징하는 서불과 관련된 서귀포지방에 전해오는 전설은 “옛 중국 진시황 때 서불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유람한 일이 있었다. 서불은 진시황의 충애를 받던 사람으로, 해외 유람이 하고 싶어서 진시황에게 산신산에서 나는 불로초를 캐어 복용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진언하였다. ‘불로영생이라?’ 욕심 많은 진시황이라 마다할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그 약초를 구해 올 것을 명하였다. 서불은 곤륜산의 천년 묵은 고목을 베어 배를 건조하고, 동남동녀 오백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서불은 황해를 거쳐 조천포에 배를 대고 신선의 열매라는 암고란(시러미)을 얻은 후 서귀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 갔다. 서불이 과연 불로초를 얻어지는 몰라도 조천포와 서귀포 정방폭포의 암벽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라 새겨 놓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1956년 3월, 서귀읍 호근리 고흥일님 談)¹⁾ 이와 같이 서귀포라는 지명은 서불이 불로초를 구해 서쪽으로 돌아갔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이 전설에 지명유래를 근거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설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하여 특정지역에만 전승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서불과지 전설은 지명유래로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조천포와 관련한 서불전설은 “옛 중국 진시황 때 서불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유람한 일이 있었다. 서불은 진시황의 충애를 받던 사람으로, 해외 유람이 하고 싶어서 진시황에게 산신산에서 나는 불로초를 캐어 복용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진언하였다. ‘불로영생이라?’ 욕심 많은 진시황이라 마다할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그

1) 진성기, 『남국의 전설』, 서울 : 학문사, 1978), 141-142

약초를 구해 올 것을 명하였다. 서불은 곤륜산의 천년 묵은 고목을 베어 배를 건조하고, 동남동녀 오백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서불은 황해를 거쳐 조천포에 배를 대고 신선의 열매로 알려진 시러미를 얻고 뒤에 서귀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때 조천포 바위에 조천朝天이라고 새겨 놓았다고 한다. 이 조천을 따서 오늘날 조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조천석은 연복정 밑에 깔렸다고 하는데, 과연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일설에는 암석 위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고 새겼다고 한다.²⁾

2. 서불에 대한 사실 조명

1) 한국 사료에 나타난 서불

불로초에 관한 기록은 많으나, 서불과 관련된 자료는 많지가 않다.

서불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해동제국기』에는 “진시황이 서복으로 하여금 바다로 들어가 선약을 구하게 하니 서복은 드디어 기이주紀伊州에 도착하여 그곳에 살면서 76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수명은 115세였다. ... 서복이 죽어서는 신이 되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³⁾ 『파한록』에는 “서귀포해안 절벽에 진나라 방사인 서불이 새겨 놓았다는 글자 흔적이 있는데, 백낙연 제주목사(고종 14년 1877년)가 이러한 전설을 듣고 그 절벽에 긴 밧줄을 내려 글자를 그려오게 하였다. 글자를 살펴보니 전부 12자였는데 과두문자여서 해독을 할 수가 없었다”⁴⁾는 기록이 있다.

불로초와 연관된 삼신산에 대한 기록은 많다. 제주와 관련된 주요자료는 1478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주산은 정의현 북쪽 4리에 있다. 산북향으로는 정의현을 비롯하여 김녕 등이 있다. 예부터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정의, 김녕, 함덕에는 이처럼 신선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또한 세간에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정의현 북쪽에 있는 이 영주산이 삼신산 가운데 하나”⁵⁾가 바로 영주산이다.

그러나 제주섬을 찾았던 수많은 문사들은 제주도를 영주瀛洲라 소개하면서, 불로초 보다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남극노인성에 대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영주십이경 가운데 서귀진에서 노인성을 바라본다는 서진노성(西鎮老星)에서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분명한 것은 『파한록』에 나타난 자료이다. 정방폭포 암벽에 새겨진 마애명을 탁본할 수가 없어서 밧줄을 그려오게 하였고, 글자를 확인한 결과 과두문자여서 해독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방폭포 서쪽 수직 암벽에 글자가 새겨진 마애명을 보았다는 이 고장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으며, 그 마애명이 서불이

2) 김보현, 『조천지』, 123.

3) 신숙주, 『海東諸國記』, 『일문국기』- “孝靈天皇七十二年 壬午 秦始皇遣徐福入海求仙 福遂至紀伊州居焉. 崇神天皇...在位六十八年 壽百二十是時熊野權現神始現 徐福死而爲神 國人至今祭之”

4) 김석익, 『破開錄』, 上

5)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旌義의 山川』, - “瀛洲山在縣北四里 山北即古旌義·金寧等地. 古記云 旌義·金寧·咸德多神仙. 世又傳此山即海上三仙山之一.”

이곳에 와서 떠나가며 새겼다는 서불과지(차)의 마애명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라는 지명 또한 이러한 전설로 인하여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서귀포시에서는 정방폭포 마애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서불과지라는 마애명은 찾을 수가 없었다. 서불이 정방폭포를 다녀간 시기는 기원전 210년으로 현재 기준할 때 2200년 전의 일이다. 지금도 정방폭포 해안 주변에서는 암벽이 자주 붕괴된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은 암벽 위에 수목들이 성장하면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1877년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백낙연 목사가 살폈다는 정방폭포 마애명은 제주를 찾은 관료들이 찾고자 했던 불로초와 연관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2) 중국 사료

중국사료에는 서불에 관한 자료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데 대부분 사마천의 『史記』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淮南衡山列傳』, 『封禪書』, 『漢書』, 『齋乘』 등에 서복에 대한 내용이 전하다.

서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료에 등장하는 사실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도교 사상에 기인하는 장생불사와 관련이 깊다. 이는 중국 동해안 지역마다 서복 관련단체를 조직 서복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서복에 대한 중국의 1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사기』〈진시황본기〉28년(기원전 219), “시황이 동쪽으로 군현을 순행했는데....., 제齊나라 사람인 서불 등이 글을 올려, 바다에 봉래, 방장, 영주라고 불리는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청컨대 목욕재계하여 어린 남녀들과 같이 그것을 구하러 가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시황이 서불을 파견하고 젊은 남녀 수천명을 보내서 바다에 들어가서 신선을 구해 오도록 했다. 37년 시황이 순행을 나와서 북쪽 낭야에 이르렀다. 방사 서복 등은 바다에 들어가 신약을 구했으나 여러 해 동안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서불이 많은 자원을 낭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보고를 하였다. 봉래약은 얻을 수가 있으나, 항상 큰상어 때문에 고생하여 얻지를 못했습니다. 원컨대 활을 잘 쏘는 사람과 도구를 청하오니.....”이다.

『淮南衡山列傳』에는 “시황이 또한 서복에게 바다로 가서 기이한 물건을 얻어 오라고 명했다. 서복이 거짓으

로 꾸며 말하기를 ‘신이 바다에서 대신을 만났습니다.’ 대신은 ‘너는 서황의 사자냐?’ 신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신은 ‘너는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고 묻자, 신은 ‘불로장생 약을 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신리 말하기를 너의 진황은 예가 돈독하지 못해 신약을 발견한다하더라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제가 동남에서 봉래산으로 가져온 것으로 궁궐을 짓게하고, 사람을 시켜 구리색으로구리색으로 용의 형상을 그리게 하고, 주위를 밝게 빛나게 하고서는 신이 재배하여 다시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은 현상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해신은 동남동녀에게 명하여일을 동남동녀 3천인을 파견하고, 그들에게 오곡과 백공을 데려가게 했다. 서복이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얻고서,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漢書』〈伍被傳〉에는 “진황은 서복을 시켜 바다로 나가 신약을 구하도록 하고, 보석과 동남동녀 3천인, 오곡과 백공을 데려가게 하였다. 서복이 평원광택에 갔는데, 머물러서 왕노릇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3) 일본 사료

일본에는 서복의 무덤과 사당 등이 있으나, 서복 대한 사실 기록은 그리 오래지 않다.

1339년 기다바디게 오야부사北島親房가 쓴『神皇正統記』(孝靈天皇)에 “45년 을묘, 진시황이 즉위하였는데, 시황은 신선을 좋아해 일본에 있는 불로장생 약을 구하고자 하였는바, 일본은 중국의 오제 삼왕 유서를 필요로 하였고, 시황은 극서를 모두 보내주었다. 그 후 35년 중국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공자의 경전이 일본에 보존되게 되었다.”

『林羅山文集』에는 “서복이 일본에 온 것은 분서 갱유 6~7년 전이다. 과두蝸蚪, 전주篆籀, 위칠韋漆을 생각하나, 세상에 아는 사람이 적다. 그 후 오랜 세월동안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자료가 흩어져 전해진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슬프고 애석하다.”

『異稱日本傳』에 “이주夷洲, 단주澶洲 모두 일본 해도라 불리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이국 웅야산紀伊國熊野山 아래 새가 날아 다니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서복 무덤이 있다. 웅야 신궁 동남쪽에 봉래산이 있고, 산에는 서복 사당이 있다. 태조 황제가 알현하고서, 일본 지도를 가리키며 해방海邦 유적을 묻고 웅야시를 짓도록 명했다.”

『同文通考』에 “지금의 웅야 부근에 진주秦住라는 땅이 있는데, 원주민들은 서복이 거주했던 옛 땅이라고 전한다. 여기서 7~8리 떨어진 곳에 서복사당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고적이 보이는 바 이는 그의 가신家臣의 무덤이라 전해진다. 이와 같은 구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진성제씨秦姓諸氏が 있으니, 진인秦人의 왕래는 필연적이다.”

3. 전설에 나타난 서불과지의 의미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서불에 대한 전설은 대부분 불로장생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는 서불이 불로장생을 가절하게 원했던 진나라 시황제 재위 시 황제의 명을 받아 장생불사라는 신약을 구하려 영주산을 찾아 항해했다는 점에서 전설의 신비함이 살아 있다.



전설에 나타난 서불에 대하여는 제주에서는 서귀포와 조천에서 전해오는 서불과지와 조천포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나라에는 남해안 일부에서 전해올 뿐이다.

중국에서는 서불이 진나라 시황제 재임 시 현존했던 인물로 확인하고 있다. 단 서불의 고향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출항했던 곳, 서불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다.

신의 나라 일본에서는 큐슈, 혼슈, 히키 지방 등 10여개가 넘는 현에서는 서불 전설이 전하며 그를 농경신, 의약신, 방직신으로 받들 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 100여개소의 서불 관련 유적과 사당이 전하고 있을 만큼 서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의 전설 차이는 정방폭포는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향해하던 도중, 영주산에 올라 불로초를 구하고 돌아간 경유지이며, 일본에서는 서불이 불로초를 찾아 일본에 도착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정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설이 발원된 시기에 대하여는 추정할 수가 없다. 문헌상 서귀라는 지명 표기는 『조선왕조실록』(세종)21년(1439) 당시 한승순 안무사가 도내 방어 상태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에서 서귀西歸라는 지명 표기가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한, 천지연 생수궤유적에서 발굴된 후기 구석기유적을 근거로 하고 있어, 언제부터 ‘서불과지’전설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추정 자체가 어렵다하여도 이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